

글로벌 소식 광장 Global Goings~on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uth African Private Hospital Price Levels,

Luca Lorenzoni, Tomas Roubal, 2016,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85,
OECD Publishing, Pari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료체계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임의 민간건강보험(private voluntary health insurance)에 전체 보건 지출의 41.8%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2013년도 OECD 평균인 6.3% 보다 6배가 넘는 수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렇게 민간보험 지출에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상위 17%에 해당하는 고소득 자만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될 정도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민간보험지출의 큰 규모를 고려해볼 때,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활동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OECD 국가들의 병원 서비스와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에 앞서 국가의 GDP와 서비스 가격수준에 대한 관계를 찾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입원 횟수와 평균 입원 기간, 유형별 비용과 비용 구조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당 병원 자료는 2011년~2013년의 자료에 해당되며, 총 625,940건(입원환자는 89.8% 해당)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OECD 국가의 병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병원비용의 수준과 상응함을 보인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1인당 GDP를 보이므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병원비용 수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 낮은 1인당 GDP(2013년 기준, OECD 20개국 평균의 1/3 이하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의 가격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과 필적하며, 매우 높은 GDP 수준을 보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와 민간병원비용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53%)이다. 하지만 민간병원비용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또한, 병원서비스비용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매년 평균적으로 6.5%(입원환자의 경우 매년 평균 6.7%)가 상승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간병원비용은 국가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했을 때의 비용보다 높으며, 심지어 해당 비용은 고소득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보더라도 비싼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에 얼마나 많은 전문의들의 유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보조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접근성과 질을 보장하면서 가격 인상을 조정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보건 분야에 소비되는 상당한 소비를 고려해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향상 시킬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Diverging patterns of fertility decline in Uruguay,

Mathias Nathan, Ignacio Pardo, Wanda Calella, 2016, *Demographic Research*, 34(20), pp.563-58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들은 수십년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 해당 지역에 속한 브라질, 쿠바,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와 같은 국가들은 여성 1인당 2명 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실정이다(United Nations, 2015). 또한, 첫째아 출산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이는 27살에 가까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국가인 우루과이는 특히 과거부터 다른 나라와는 대비되는 출산율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우루과이 여성들은 평균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우루과이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들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여섯 명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리고 우루과이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0년까지 2.8~3.0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 중반에 2.5로 감소하였고, 다음 10년간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 후, 1996년에서 2011년 사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은 1.9에 이르게 되었다(INE 2014).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최근 30년간 우루과이의 가족 구조 변화에서 찾고 있다. 혼인율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초기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세 이하에서는 커플 다섯 쌍 중 네 쌍이 동거를 택하는 큰 변화를 보였으며(1984년에는 커플 열 쌍 중 한 쌍이 동거), 이혼과 별거가 증가하는 등 가족 구조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적절하고 광범

위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출산 경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출산순위(birth order)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우루과이의 인구동태통계, 인구총조사, 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수준과 출산시기 변화를 분석하고,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에서는 합계출산율은 출산순위가 높을수록(첫째아 보다 둘째아가 출산순위가 높음) 출산이 감소하고, 첫째아, 둘째아를 출산하는 여성의 연령은 높아졌다.

연령별 출산율 추정을 위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출산하는 평균 여성 연령의 적당한 증가를 반영하는 출산 감소에 대한 출산이행중단 모형(parity-specific stopping model)에 자료를 적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둘째 출생순위를 조건으로 하는 출산율 분포는 비대칭의 쌍봉형(bimodal) 형태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출산시기의 이질성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출산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루과이는 첫째아 출생 연령에 대한 이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 과거의 연구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생시기의 이질성을 사회 불평등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여성은 첫째아를 출산하는 나이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간 이상 사회계층에 속하는 여성은 출산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보았다. 즉, 모형적합에 대한 결과는 실증적으로 사회 불평등적 구조와 관련이 되

며, 우루과이 여성의 늦어지는 출산시기는 이러한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Institutional disparities and asset allocation homologation in Italia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funds. How do they affect the guarantee commitment?

Paola De Vincentiis, Eleonora Isaia, Paola Zocchi. January 2016.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28

본 연구는 이탈리아의 DC형 연금제도의 최소보증수익률제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소보증수익률제도의 보장된 수익을 능가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의 횡단면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규제 조항을 만드는 것이며, 분석을 위해 2008~2012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총 3가지 측면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독립변수는 크게 펀드, 자산배분, 이익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노출이며, 종속변수는 각 분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관점은 특정한 시점에 투자 관리자가 보증 지급을 요구하는 확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속변수는 회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대차대조표의 30개 항목에서 보여주는 금액과 일치한다. 분석결과는 최소보증수익률, 펀드 크기, 유동자산증가로서 보조금 증가를 지불하

는 확률을 보여준다. 또한 국채의 포트폴리오의 높은 발생 빈도를 고려한 금융시장의 수익, 변동성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펀드가입자들 때문에 적절하게 빈도가 발생한다.

두 번째 관점은 연간 기준으로 실제 수익률과 최소 보장 수익률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실제 수익률과 최소 보장 수익률에서 계산되어진 값의 차이이다. 분석 결과 보장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능력은 보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장 상태에 강하게 의존되어진다. 보험회사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기금은 LDI 전략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기금의 기관기능과 자산 할당은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투자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측면은 강력한 변동성이 존재하지 않은 연금기금의 증가되는 지속기간이다.

세 번째 관점은 대부분 설명이 가능한 요인을 조사하고 기금과 비용사이의 관계를 검사하는 운영비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폐쇄적인 기금이 보다 더 효율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비용은 보장 수익률의 수준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기금의 크기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관의 특징 및 크기가 행정 및 관리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크고 폐쇄적인 기금에서 얻어지는 행동에 대한 보다 더 좋은 잠재력은 최소 보장 수익률과의 높은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최소보장수익률의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tirement and evolving policy discourse of working longer

Philip Taylor, Catherine Earl. April 2016.
Journal of Social Policy. pp. 251-268

역사적으로 산업화 된 국가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정치적인 담론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50~60년대에는 강한 경제성장과 노동 부족으로 인력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기간인 198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고령 근로자와 사회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조기 퇴직은 어느 정도 젊은이들에게 일을 재분배하는 노력으로 여겨졌다. 사회복지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노동시장의 이탈과 조기 퇴직의 나이의 연장은 산업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대안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은 연령 세그먼트와 고령 근로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국한되어 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공급의 확대와 함께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파트타임(Part-time) 업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은 일부 고령 근로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정책과 함께

근로기간의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 근로자와 은퇴의 사회적 구조 고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고령 노동자의 역할과 은퇴의 성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점을 적용시키고 있다. 고령 근로자와 노동 시장 사이의 관계에 발생하는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고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상황변화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구조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에 대한 정책은 모순과 괴리를 동반하게 된다. 고령 근로자의 현 실태는 정책개발을 위한 약한 기반을 제공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태도를 극복을 위한 전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실 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노동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에 고용에 대한 주류화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인식하면서 정당화됨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정책은 근로기간의 연장이 근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적인 가정을 나타내도록 접근하고 있다. Brooke and Taylor(2005)는 고령 근로자에 관한 정책이 연령과 연령 집단 역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령 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폭넓은 접근 방식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활력 있는 고령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Hartlapp and Schmid(2008)는 일은 광범위하게 개념화되어야하고 경제변수가 아닌 근로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고령 근

로자와 함께 평생 관점에서 보다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접근방식은 임금보조금 같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령 차별 노동 시장 프로그램은 이동성과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보다 단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은 고령에 대한 부정적인 존재를 인식시킬 뿐 아니라 고용환경에서 고령노동자를 막아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Immigration and welfare support in Germany

■ Schmidt-Catran, A. W., Spies, D. 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2),
pp.242-261, 2016.

최근 이민에 의해서 증가된 민족성 이질성과 복지국가에 대한 공공의 지지 간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민족성이 동질적인 유럽유형의 복지국가가 이질적인 인구에 대해서 쉽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몇 개의 국제비교 연구들은 이민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원국민의 지지 감소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cross-section 설계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태어난 거주자들의 숫자를 국가적 수준에서 총합한다. 이 두 측면들은 모두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독일의 횡단적 영향과 종적 영향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1994년과 2010년 사이의 몇 개의 시점들에 대한 개인과 지역 수준의 자료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국민들이 지역적 수준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영향은 이민의 처음 국면에서 특히 강하였다. 그리고 이 영향은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이 복지 제공에 대한 원국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의 복지국가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독일의 이민자 특성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제공하였다.

Penalized or protected? Gender and the consequences of nonstandard and mismatched employment histories

■ Pedulla, D. 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2), pp.262-289, 2016.

수백만의 근로자들은 표준적인 고용관계와 풀

타임 아닌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으며, 자신의 기술, 교육,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러한 고용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 파견근로, 기술의 저이용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기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제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필드 조사와 서베이 조사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다룬다: (1) 비표준적 또는 자신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고용경험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기회에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2) 비표준적 또는 자신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고용경험이 남성과 여성에게 대해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3) 비표준적 또는 자신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고용경험을 노동시장 결과와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필드 조사는 기술의 저이용이 실업과 같이 근로자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파견근로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남성은 타임 근로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여성은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서베이 조사는 근로자의 경쟁력과 헌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이러한 영향들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은 고용관계의 변화가 “새로운 경제”에서 노동시장 기회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